18세기 조선통신사 醫官과 儒醫의 역할
- 醫學問答을 중심으로 -

함정식, 김남일, 안상우[1], 박상영[1], 차웅석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1]한국한의학연구원

The role of Medical Officers and Confucian Doctors in the 18th Century in Joseon

Ham Jeongsik, Kim Namil, Ahn Sangwool, Park Sangyoung[1], Cha Wungseok

College of Korean Medicine of Kyung Hee University, [1]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In the 18th Century, those who played most important role in international interchange of medical science between Korea and Japan were skillful doctors and doctors of Joseontongsinsa(Correspondents of Joseon called on Japan as a mission). But they have been truly neglected by researchers on history of Korea, even on history of Korean medical science. They were received warm treatment from Japanese. But They were at the most middle-class in social standing in Joseontongsinsa. Though they played important role, they were underpriced and their brilliant achievements were faded out. It is on account of their low social position in Joseon Dynasty, a strict class society. Samsa, Jesulkuan, and Seogi were members of Joseontongsinsa those who were high class in social standing and were good at writing. In general, they were also Confucian doctors in Joseon. In the case of Samsa, there was Seo Myungung who was famous Confucian doctor. And since 'dispatch principle of Jesulkuan' had been prepared, Jesulkuans had paticipated in questions and answers on clinical problems. In a broad sense, We can regard Lihyun, a Jesulkuan in 1711's mission, Shinyuhan, a Jesulkuan in 1719's mission, and Seogies of Samsa as Confucian doctors. Though they were not medical specialist, but we can find them as Confucian doctors through the questions and answers on clinical problems they were participated in.

key words : Joseontongsinsa, doctor, interchange, Samsa, Jesulkuan, Seogi

Ⅰ. 서 론

의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학의 변천과정이나 저자의 학술경향과 의학사상 등을 살펴보는 방식은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방법의 성격상 필연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몇 가지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첫째, 의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일부 특권 계층에게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반영할 수는 있어도, 해당 의서가 만들어질 당시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일반 백성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행해진 질병치료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추론하기 어렵다[1]는 점이 있다. 이는 15~16세기에 향약 의술의 발달이 있었지만, 대체로 18세기 이전 시기는 조선의 민간의료가 전국으로 확산되기 전이라 일반 백성들이 각 시기에 따른 의학발달 수준에 준하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시기

접수▸2007년 2월 27일　수정▸2007년 4월 3일　채택▸2007년 4월 16일
교신저자▸차웅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Tel 02-961-9446　Fax 02-965-5969　E-mail chawung@khu.ac.kr

1) 신동원, 『조선 사람의 생로병사』, 한겨레신문사, 1999:259. 신동원은 고조선 이후 조선말까지 한방 의료가 고급의료로 존재했기 때문에 한의학은 소수의 독점물이 되었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서민이 한방 의료를 이용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였다는 것이다.[2] 둘째,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의서의 卷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연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러한 연구 방법이 지니는 한계로 볼 수 있다.

더구나 醫學史를 연구하는 서양의학자들의 경우, 그들의 주된 관심의 초점은 의료를 행한 인물을 조사하거나 의료제도사 분야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서양의학자들이 醫學史를 연구하는 방법 역시 일반 백성들에게 흔히 발생했던 질병과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정확히 추론하게 하는 데에 일정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통신사 筆談唱和集에 수록된 '醫學問答類'의 기록과 일부 使行錄에 실려 있는 의학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醫學史를 연구한다면, 당시에 저술된 의서를 통한 기존의 연구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論者가 조선통신사의 醫官과 儒醫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특별히 18세기 초기[3] 의학문답 기록을 사례로 삼은 까닭은 첫째, 임진왜란 이후 일종의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작되었던 조선통신사가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의학을 비롯한 문화교류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주목하게 된 것이 그 이유였고, 둘째, 18세기는 조선 한의학이 이웃 국가들에 의하여 그 높은 수준을 인정받기 시작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즉, 金元四大家에 대한 통합된 논의를 설정하고자 하였던 『醫林撮要』의 영향[4]을 받아 1610년(광해군 2) 16년의 연구 끝에 완성된 『東醫寶鑑』은 조선 한의학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18세기에 와서는 일본과 청나라에서도 간행이 될 만큼 조선 한의학의 수준은 이웃 나라에서 높이 평가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5] 셋째, 18세기는 한의학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던 시점이라는 점이다. 18세기에 이르면 농업생산력이 증대되고 약재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한의학의 대중화가 크게 확대된다. 일반 백성들이 『東醫寶鑑』과 같은 고급의학을 이해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나, 『東醫寶鑑』 이후에 편찬된 『廣濟秘笈』이나 『濟衆新編』, 『醫宗損益』, 『方藥合編』 등의 간편 의서들에는 보다 간략한 處方이나 單方이 많아 의약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18세기는 발굴된 의학문답 자료가 다른 시기에 비하여 많고 기록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 등 이상의 네 가지 요소가 특별히 18세기의 조선통신사 의학문답 기록을 연구 사례로 삼은 이유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 18세기 한일 교류 중에 남아있는 기록을 통하여 醫官으로 파견된 良醫와 醫員의 역할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18세기 조선통신사 筆談唱和集에 수록된 의학문답 기록을 중심으로 良醫와 醫員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으며, 왜 그들은 조선통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의학사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사항들에 관한 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良醫와 醫員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하여 파견된 통신사행원들이 의학문답 기록에 자주 등장하면서 儒醫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인물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그들은 의학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남겨진 의학문답 기록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것은 한국의학사 연구에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 것인지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

2) 김홍균, 「조선중기 의학의 계통에 관한 연구」, 『한국의사학 논문집』, 1995:197.
김홍균은 『東醫寶鑑』이 간행 된 17세기에 이르러서도 일반 醫家에서 이를 곁에 두고 참고하기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 쉽지 않았고, 비록 인쇄술의 발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국 방방곡곡으로 세세하게 頒布를 하기에는 그 많은 활자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3) 조선통신사를 파견한 初期라 함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1607년 丁未使行의 공식 명칭은 '回答兼刷還使'이다. 이를 제1회 조선통신사로 인정할 경우 1607년 이후부터 몇 년 동안의 시기를 말하며, '조선통신사'라는 공식 명칭이 사용된 1636년 丙子使行을 제1회 조선통신사로 간주할 경우에는 1636년 이후의 시기를 초기라 정의내릴 수 있다. 조선통신사의 시대 구분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여러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사적인 시대 구분의 경우 조선통신가가 이루어진 전체시기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1회 조선통신사를 어느 시점으로 잡을 것인가와 상관없이 1682년 壬戌使行을 기준으로 이전 시기를 전기로 잡고, 1682년 壬戌使行부터 1811년 辛未使行까지를 후기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조선통신사가 문화교류 사절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 1682년 壬戌使行부터이고, 이때부터 통신사는 종래 닛코[日光]를 방문하여 치제를 올렸던 讀祝官 대신에 문화교류의 담당자이자 儒醫의 면모를 보이는 製述官과 書記를 파견하기 시작한다. 그와 동시에 '良醫'의 직함을 갖는 醫官을 파견하게 되는 점 등이 1682년 壬戌使行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論者의 시대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서 조선통신사를 파견한 初期의 의학적인 기록들이 발굴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 시기를 재설정 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4) 김홍균, 「『醫林撮要』의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00:98.
김홍균은 『醫林撮要』의 『東醫寶鑑』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鄕藥集成方』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전통적 향약에 대한 연구를 계승하며, 새로운 諸家의 설을 비교적 골고루 섭취하여 실용적이면서도 종합의서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는 독창적인 모습으로 『東醫寶鑑』의 편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고 주장 하였다.

5) 미끼 사까에(三木榮), 『조선의서지』, 학술도서간행회, 1973 : 340-341.
알려진 바에 의하면 『東醫寶鑑』은 1724년(경종 4)에 최초로 해외에서 간행되었다. 일본에서 1662년(현종 3)에 이 책이 전해진 후에 1724년에 일본의 京都書林에서 初刊되고 76년 후인 1799년(정조 23)에는 大坂書林에서 재간되었으며, 에도시대[江戶時代] 醫家들의 필독서가 되었다고 한다.

Ⅱ. 본 론

1. 18세기 조선통신사의 良醫와 醫員

1) 평가절하 된 良醫와 醫員

18세기에 조선통신사로 파견되어 도쿠가와[德川] 막부가 지배하던 에도시대 일본[6]의 醫師, 針醫, 儒家들과 의학문답을 나눴던 조선 의학자인 良醫와 醫員은 일본 의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신의학을 보유하고 있었던 의학전문가들이었다. 때문에 이들이 남긴 질병에 대한 醫論이나 醫案, 병을 앓고 있던 환자들을 치료하며 작성한 생생한 기록들은 醫學史的으로 대단히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면에서 조선통신사 의학문답 자료는 醫學史를 연구하는 기존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醫學史를 연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바로 이렇게 남겨진 자료들 안에는 당시의 醫論이나 醫案과 같은 선진 의학사상이 담겨 있는데, 사료의 가치를 인정받게끔 그 생명을 불어넣어준 집단이 다름 아닌 良醫와 醫員이었다. 이들은 바로 論者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18세기 한일 의학교류에 중추적 역할을 한 인물들이었다. 良醫와 醫員의 활약이 대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통신사의 良醫와 醫員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조선은 세종 때부터 일본에 '통신사' 라는 이름으로 사신을 파견하였고, 임진왜란 중에도 '통신사' 라는 이름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후 3번[1607년, 1617년, 1624년]의 사행에는 '통신[通信 : 믿음을 주고받는다]' 이란 말이 가당치 않다고 쓰지 않다가, 1636년 사행 때부터 '통신사' 라고 불렀다. 이 해의 통신사행 때에는 일본 측이 유능한 의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醫官이 포함되었으며, 1682년부터는 정식으로 '良醫' 의 직함을 가지고 사행에 참가하였다. 통신 사절이 도착하면 일본의 의사들은 그 당시 의료선진국이었던 조선의 의사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경로로 조선 醫員과의 면담을 신청하였고, 의학문답을 통해 얻은 새로운 지식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책자로 남겼다.[7] 醫官은 1682년 壬戌使行부터 '良醫' 라는 이름으로 참가한 이후 易地通信[8]으로 사행인원이 대폭 줄어든 1811년 辛未使行 이전까지인 18세기의 사행에서 良醫 1명에 醫員 2명으로 그 숫자가 정착되었다.

일본에서 良醫와 醫員의 활약은 대단하였고, 이들을 위한 일본 사람들의 예우 역시 굉장하였다. 일본 의사들은 良醫와 醫員과 의학문답을 나누고자 열광하였고, 자신들이 만들거나 정리한 의학저술을 이 들에게 보이고는 서문이나 발문을 써주기를 간청하였다. 자신들의 저술에 良醫나 醫員이 써 준 서문 또는 발문을 받게 되면, 그 저술은 가치를 인정받게 되며 그 들로서는 더없는 영광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모든 일본 의사들이 良醫와 醫員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수행하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 허락받은 일본 의사만 이들과 만날 수 있었다. 1719년 己亥使行 때의 의학문답 기록인 『藍島鼓吹』 도 저자인 小野士厚가 良醫와 醫員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조선통신사를 수행하던 대마도의 관리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9]의 주선에 의하여 겨우 이루어진 만남 덕분에 탄생된 책이었다.

良醫와 醫員은 좁게는 한일간 의학의 교류라는 점에서, 넓게는 조선통신사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평가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인물들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우리의 醫學史나 한의학대사전 등 어디를 살펴보아도 이들에 대한 자료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최근에 1711년 辛卯使行 때 良醫로 참가한 奇斗文이라는 인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었지만, 奇斗文을 제외한 대부분의 良醫와 醫員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典醫監과 惠民署 등에서 의술이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조선통신사의 良醫와 醫員을 임명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수준 높은 의학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통신사의 良醫와 醫員이 우리 醫學史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신분과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

6) 17세기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조선통신사가 파견된 당시의 일본은 에도시대(1603~1868)로 도쿠가와[德川] 막부가 지배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조선의 상대국 일본은 모두 도쿠가와 막부가 지배하던 시기를 가리킨다.

7) 안상우, 고의서산책 中 「兩東唱和後錄」, 민족의학신문, 2005년 08월 12일 제524호.

8) 19세기에 들어와 통신사 파견의 의미가 상실되면서, 1811년 통신사는 여정을 바꿔 에도가 아닌 대마도에서 국서를 교환하게 되는데 이를 易地通信 또는 易地聘禮라 불렀는데, 그 중 역지빙례라 부르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러나 易地通信이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러한 까닭은 聘禮라 함은 조선이 일본에 대하여 예를 갖추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論者가 2006년 조선통신사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일본의 여러 박물관을 찾아갔을 때에도 아직까지 易地聘禮라는 잘못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9) 통신사와 함께 에도를 왕래하며 외교 문서의 작성과 해독을 담당했던 쓰시마 번의 문관이었는데, 아버지와 숙부는 모두 의사로, 아메노모리 호슈도 의사의 家業을 잇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도에 의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당대 최고의 유학자 기노시타 준안[木下順庵]의 문하로 들어갔다.

良醫와 醫員으로 참가했던 인물들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대신 이 들과 거의 엇비슷한 신분이었던 조선통신사의 製述官과 書記들의 대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와 비교해 보면 대략적으로 良醫와 醫員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다. 製述官과 書記들은 文科에 급제한 進士정도의 신분으로, 통신사행에 뽑혔을 당시는 낮은 벼슬을 하고 있거나 벼슬이 없어서 종6품이나 종8품 정도의 벼슬을 받았다. 그러나 더 이상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비슷한 위치에 머물렀는데, 그 이유는 서얼출신이었다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보아 製述官 보다 오히려 약간 더 낮은 단계에 처한 良醫와 醫員 역시 서얼출신이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良醫와 醫員은 일본 사람들에게 대단한 예우를 받았지만, 정작 조선에서는 조선통신사에서의 이 들의 위치는 중간 정도의 서열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엄격한 신분주의 사회가 유지되었던 조선에서 이 들이 수행한 역할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고, 그 들의 업적 또한 빛을 보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조선이라는 특수 신분 사회에서 良醫와 醫員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신분의 제약으로 인하여 평가절하 된 것이었다. 무관심 속에 묻혀있었던 良醫와 醫員들의 업적을 되살려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2) 통신사에서 良醫와 醫員의 위치와 역할

良醫와 醫員이 통신사의 사행원으로 일본에 파견되어 해야 할 임무나 역할을 자세하게 적어 놓은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增正交隣志』[10]와 통신사 의학문답 기록, 使行錄의 내용을 살펴보면 良醫는 주로 일본의 의학자나 유학자들과 필담을 나누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었던 것 같다. 醫員의 경우는 의학문답에 참여하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주된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다. 良醫와 같이 醫員도 어떤 경우에는 의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 筆談唱和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통신사에 참가하는 400~500명에 이르는 인원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9개월 동안의 힘든 여정을 겪다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기 위하여 1636년 丙子使行부터 醫員을 파견한 것으로 추정된다. 1711년 辛卯使行의 경우 醫員이 의학문답에 참여한 기록뿐만 아니라 이들이 수행한 역할에 대한 기록을 전혀 볼 수 없고, 1719년 己亥使行 의학문답 기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醫員 白興詮과 金光泗가 良醫 權道와 함께 의학문답에 참여한 사실을 볼 수 있다.

良醫 역시 의학문답만 나눈 것은 아니고, 일반 필담창화 및 질병 치료에도 참여 하였다. 하지만 良醫가 담당한 질병 치료의 횟수가 醫員의 경우보다 훨씬 적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良醫에게 치료를 받는 환자의 신분은 醫員에게서 치료를 받는 환자의 신분과 차이가 있었다. 良醫와 醫員은 그 들이 타고 가는 선박의 종류도 달랐고, 일본에 도착했을 때 일본의 각 島主로부터 받는 음식 대접이나 선물의 종류와 수량 또한 달랐다. 육로 여정의 경우 특정한 상황에서 良醫만 가마를 타고 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등 良醫와 醫員은 신분상으로 철저하게 구분이 되는 대접을 받았다.

조선통신사의 良醫와 醫員들은 中人 신분의 의사들로 구성되었다. 良醫와 醫員의 위치는 각 사행시기 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아래의 <표1>과 같이 官級에 따라 이를 분류해 보면 전체 사행인원 중에서 중간 정도의 신분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들이 맡은 역할의 중요도를 고려해 봤을 때 턱 없이 낮은 지위라 아니할 수 없다.

<표 1>. 조선통신사 사행원의 관급에 따른 분류

官級	職　　官
三使	정사(正使), 부사(副使), 종사관(從事官)
上上官	당상왜학역관(堂上倭學譯官)
上判官	상통사(上通事)
學士	제술관(製述官)
上官	양의(良醫), 사자관(寫字官), 의원(醫員), 화원(畵員), 자제군관(子弟軍官), 군관(軍官), 서기(書記), 별파진(別破陣) 등
次官	마상재(馬上才), 전악(典樂), 이마(理馬), 반당(伴倘)·선장(船將)
中官	도훈도(都訓導), 예단직(禮單直), 청직(廳直), 반전직(盤纏直), 사령(使令)
下官	풍악수(風樂手), 도우장(屠牛匠), 격군(格軍)

* 『增正交隣志』의 서술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良醫와 醫員이 일본에 도착하면 전국에서 몰려든 일본의 醫師, 針醫, 儒家들과 당시 일본 전국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의서, 의학사상, 침술, 인삼을 비롯한 다양한 약재, 조선과 일본사람들에게 유행하던 질환 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필담을 나누었다. 문답형식으로 진행된 필담이나 대화를 기록해 두었다가 몇 개월 후에 서적으로 엮어서 만든 기록들을

10) 金健瑞 외, 『增正交隣志』, 제5권 志, 通信使行.
조선 후기에 조선이 교린정책을 편 일본 등의 인접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기술한 책으로, 1802년 사역원 당상역관 金健瑞·李思恭·林瑞茂 등이 1682년(숙종 8)까지의 조선통신사 파견에 대한 형식과 의례를 새롭게 정리하여 편찬하였다. 良醫에 대해서는 일본이 요청하면 의술에 정통한 자를 가려서 파견하다는 기록이 보이고, 醫員에 대해서는 典醫監, 惠民署에서 각각 1명씩 선발한다는 기준은 제시가 되었지만, 이들의 임무나 수행할 역할에 대한 언급은 없다.

筆談唱和集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의학과 관련된 부분을 모아 놓은 것을 '醫學問答類'로 정의하였던 것이다.[11]

良醫는 그 직급이 통신사의 醫員 직급보다 상위에 있었고, 통신사행에 파견되어 수행한 일 또한 醫員과는 구분되었다.[12] 1711년 辛卯使行의 경우 3편의 의학문답 기록인 『兩東唱和後錄』, 『鷄林唱和集』, 『桑韓醫談』이 남아 있는데 이 기록들에는 醫員이 필담에 참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3편의 기록만을 가지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도, '醫員 3명'의 신분이 아닌 '良醫 1명에 醫員 2명'으로 직급을 구분해서 파견한 이유로 보아 良醫와 醫員의 역할이 달랐음을 추측할 수 있다.

2. 18세기 조선통신사의 儒醫[13]

1) 통신사에서 儒醫의 모습

김남일은 「韓國 醫家의 정체성에 대하여」에서 醫學은 儒學의 이데올로기를 잘 지탱해주는 좋은 도구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중국 宋나라 이후에는 醫學을 하는 유학자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러한 집단을 儒醫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였다고 한다. 또한 좁은 의미의 儒醫를 유교적 사상의 기초위에서 의학의 이치를 연구하는 사람들로 정의하였고, 넓은 의미의 儒醫를 당시 지식인들 중에서 의학의 이치에 통달하여 의학연구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 내렸다.[14] 또한, 그는 조선시대를 수많은 儒醫들이 활동한 시기로 규정하여 儒學 연구에서 체득한 지식을 그대로 의학연구에 활용하고 이를 민중 구료에 이용한 의료인 집단을 儒醫라 부르며, 한국에도 이러한 儒醫들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활동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조선통신사 사행원의 면모를 보면 上官이상의 직급에 속하면서 문장이 뛰어났던 三使, 製述官 및 書記 중에는 조선에서 儒醫로 활약했던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가령 三使의 경우, 1764년 甲申使行 때 맨 처음 正使로 임명된 사람은 儒醫로 활약한 徐命膺(1716~1787)[15]이었다. 비록 그가 당쟁에 연루되어 함경도 종성으로 유배를 떠남에 따라 趙曮이 正使직을 이어 받게 되었으나, 서명응의 경우는 三使에 임명된 사람 중에는 의학지식을 충분히 함양하고 있는 儒醫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서명응은 의학이 백성들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道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구현하는 데에 가장 좋은 학문이라는 인식하에 의학연구에 힘썼으며 의학에 관한 서적으로 『攷事新書』를 남긴 儒醫였다. 三使의 경우 儒醫로 이름을 날린 서명응의 예가 있었듯이, 製述官의 경우를 보게 되면, 製述官 파견의 원칙이 생겨난 1682년 壬戌使行 때부터 일본 각지에서 의학문답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1711년 辛卯使行 때의 製述官 李礥(호는 東郭)[16]과 1719년 己亥使行 때의 製述官 申維翰 등 三使의 書記들과 함께 모두 넓은 의미의 儒醫로 분류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당시 儒醫들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또 하나의 좋은 보기를 조선의 內醫院, 典醫監, 惠民署의 성격에서 찾아 볼 수 있다.[17] 왕실 의료기구인 內醫院에는 때때로 필요

---

11) 이원식, 『조선통신사』, 민음사, 1991:64.
조선통신사의 良醫와 醫員들은 일본의 醫家 외에 여러 신분과 계층의 인물들과 접하면서 의학과 관련된 문답만을 나누지는 않았다.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필담을 나누었는데, 그 내용은 科學制度·諺文·冠婚喪祭·花鳥·筆墨의 製法·富士山과 金剛山·衣冠·觀相·釋尊·退溪 朱子學·中國의 事情·女人 染齒·生活習俗·徐市東渡說·煙草와 煙管 등이었다.

12) 소강절, 『皇極經世書』, 臺北 : 中華書局, 1982.
良醫는 그 語源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보통의 의사가 아닌 훌륭한 의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던 것 같다. 가령, 良醫에 대하여 北宋代 邵雍은 『皇極經世書』에서 "醫人之所不能醫者 天下之良醫也"라고 표현하였고, 元代의 薛德之는 『外科精義』에서 "…不遇良醫也 以此推之 凡用醫者不可不擇 縱常醫療之得痊者幸矣"라 하였듯이 조선통신사의 '良醫'가 갖는 개념과 완벽하게 부합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觀物外篇 下之四 ; 제덕지, 『外科精義』, 「針烙瘡腫法」 참고.)

13) 김남일, 「韓國 醫家의 정체성에 대하여」, 『제7회 한국의사학 학술대회 자료집』, 2006:p.78, p.81.
김남일, 「中國醫學史 속에 보이는 醫學論」, 『대한의사학회지』, 2004;13(1):p.130.

14) 임은, 『한의학과 유교문화의 만남』, 예문서원, 1992:239.
林殷은 儒醫라는 명칭이 宋代 洪邁의 『夷堅志』에 최초로 보인다고 하면서 "薪 땅에 謝顯權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대로 儒醫이다."라는 문장에서 그 語源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15) 김기욱 김남일 外, 『한의학통사』, 대성의학사, 2006:381.
서명응은 박물학의 대가로서 그의 저술을 모아놓은 『保晩齋叢書』는 농업, 수리, 천문, 양생, 의학 등 분야를 총망라하는 명저이다. 서명응의 학문은 손자인 서유구에게도 전수되었고, 박지원, 이덕무, 성대중, 유득공, 박제가 등 북학파의 학자들과도 학문적으로 연결되어있다. 또한 이 중 성대중은 1764년 甲申사행 때 서기관으로 참가하여 使行錄 『일본록』을 남긴 인물이다.

16)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 서비스, (http://jisik.kiom.re.kr/)
字가 重叔, 號가 東郭이다. 1654년생으로 1675년에 진사, 1693년에 文科에 狀元으로 급제하였다. 1697년에 重試에 급제한 후 일찍이 安陵太守를 지냈으며, 赴日 당시 58세의 나이였다. 우리 측 기록인 『系行譜』에는 그가 호조정랑을 지냈으며, 통신사절의 일행으로 일본에 들어가 文名을 날렸다(以通信從事, 入日本, 有文名)고 적혀 있다.

17) 김남일, 「韓國 醫家의 정체성에 대하여」, 『제7회 한국의사학 학술대회 자료집』, 2006:76.
왕실에는 內醫院, 典醫監, 惠民署, 活人署, 濟生院 등의 의료기구가 있었다. 이 가운데 內醫院, 典醫監, 惠民署의 세 기구를 三醫司라고 하여 조선시대 왕실 의료기구의 근간이 되었다.

에 따라 侍藥廳, 議藥廳, 産室廳 등을 개설하기도 하였는데, 侍藥廳은 국왕이 병이 들었을 때 설치하는 임시기구로서 왕이 복용할 약물을 담당하였다. 侍藥廳은 병이 악화된다고 판단될 때 설치되었고, 일단 이 청이 마련되면 지침에 따라 議藥, 投藥이 이루어졌다. 그 구성은 內醫院의 醫官들과 그 당시 유명했던 儒醫들로 구성되었을 만큼 조선 의학은 儒醫의 전통이 매우 깊었다고 볼 수 있다.

典醫監과 惠民署에서 의술이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조선통신사의 良醫와 醫員을 임명했다는 사실을 上記한 바 있었는데, 典醫監은 의료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의료 기관이었다. 그 업무는 왕실 및 조정의 관원들의 진료, 투여할 의약, 약재의 재배, 의사국가 시험의 관장 등이었다. 惠民署는 일반 백성들의 진료와 각 도에서 선발된 醫女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인 典醫監과 더불어 의학생도들을 교육하는 임무도 갖고 있었다.[18] 典醫監의 職制 중에 正, 副正, 判官, 主簿는 각각 두 명으로 구성[19]되었는데, 이 중 한 명을 博學文士인 儒醫를 한 명씩 겸직하게 하였다. 惠民署 역시 의학교수 두 명 중에 한 명을 文官이 겸직한 것으로 보아 많은 惠民署에도 적지 않은 儒醫들로 구성되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儒醫들은 '醫儒同道' 라는 표현을 통하여 의학윤리나 의학이론을 전개하는데 적극적으로 유학의 이론을 수용하여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20] 明代의 대표적인 儒醫 李梴은 "의학은 유학에서 나왔다. 책을 읽고 이치를 밝히지 않으면 마침내 용렬하고 속되며 혼미해져 변화에 疏通할 수 없다." [21]고 하여 의학과 유학의 상관성을 밝혔다. 앞으로 고찰할 『兩東唱和後錄』의 마지막 부분에 良醫 奇斗文이 아래의 문장과 같이 일본의 針醫 村上周南에게 日本의 倉公과 扁鵲같은 훌륭한 의술을 지니기 위해 참고할 의서로 『醫學入門』을 추천한 것도 이러한 조선의 儒醫 전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대[村上周南]가 열심히 연구하여서 補瀉虛實의 법과 『醫學入門』의 子午流注의 법과 『神應經』의 針灸 穴자리를 잘 알아 널리 배우고 밝게 변별함을 지켜 잃지 않는다면 만병을 치료함에 백발백중이 될 것이며 후에 반드시 日本의 倉公과 扁鵲이 될 것입니다.[22]

기본적으로 의학문답 기록은 良醫와 醫員이 일본의 醫家, 針醫, 儒學者의 질문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학문답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조선 측 對談者로 반드시 의학자인 良醫와 醫員만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통신사의 우두머리 격인 三使[正使, 副使, 從事官]와 그 들의 書記 및 製述官[23]은 儒醫의 면모를 보이며 대담자로 참여하여 醫家들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 의학적인 식견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조선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본도 의사를 비롯하여 여러 儒家들이 의학문답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儒家들은 일본과 달리 孝를 실천하거나 자신과 집안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사대부가 의술을 공부하는 것을 유교의 규범 중 하나로 여겼기 때문에 일본의 儒家에 비하여 의학적인 지식수준이 높은 사대부들이 많았다.[24]

上記한 여러 부분으로 보아 앞으로 연구해야 할 조선통신사 의학문답의 기록을 살펴 볼 때에는 良醫와 醫員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정사, 부사, 종사관 그리고 그 들의 書記 및 製述官의 의학적인 활동 기록까지 그것이 의학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모두 醫學史 연구의 범위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 儒醫의 모습을 보여주는 통신사의 製述官

의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 筆談唱和에도 良醫와 醫員이 참여했던 것처럼, 이와 반대의 경우인 의학문답 필담창화에 의학자가 아닌 三使, 三使의 書記, 製述官이 참여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의학과 관련된 활약을 펼친 그들의 모습이 使行錄에 남아 있다. 예를 들어, 1711년 辛卯使行 때는 製述官 李礥이 당시의 의학문답 기록인 『鷄林唱和集』에 對談者로 등장하여 일본 의사 稻生若水, 치쿠젠[筑前]의 儒醫 竹田定直과 함께 本草와 관련된 필담을 나눈 기록이 있다. 또한, 1719년 己亥使行 때에는 製述官 신유한이 『藍島鼓吹』[25]에 小野士厚와 의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신을 주고받는 기록이 보인다.

---

18) 김남일, 같은 논문, pp.76~77.

19) 김두종, 『한국의학사』, 탐구당, 1981:411.
태종 14년 監을 正, 少監을 副正, 丞을 判官으로 하는 관직의 개칭이 있었다.

20) 성호준, 「『논어』와 유의 의학의 상관성」,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회, 2003;34:191.

21) 이천, 『醫學入門』, 고려의학, 1998:603.
"蓋醫出於儒 非讀書明理 終是庸俗昏昧 不能疏通變化"

22) 村上溪南, 『兩東唱和後錄』.
"君勉勉勵勵 若夫欲知補瀉虛實之法 醫學入門子午流注之法 神應經針灸之穴 博學明辨 守而勿失 萬病治療 百發百中後必為 日東之倉扁矣"

23) 강재언,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한길사, 2005.
조선통신사가 문화교류 사절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은 1682년부터이다. 이때부터 조선 조정은 종래 닛코[日光]를 방문하여 치제를 올렸던 독축관 대신에 문화교류의 담당자로서 製述官과 書記를 파견했다.

24) 신동원, 『조선 사람의 생로병사』, 한겨레신문사, 1999:262.

25) 일본 의사 小野士厚가 펴낸 의학문답 필담창화 기록.

신유한은 使行錄 『해유록』에도 일본 지쿠젠[筑田]의 의사 小野士厚를 만났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일본의 醫官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그는 일본 의사 기타오 슌포[北尾春圃]가 저술한 『精氣神論』에 서문을 지어준 연유와 일본 사람들이 상용하는 처방에 대한 내용 등을 아래와 같이 『해유록』 附聞見雜錄 편에 싣고 있다.

醫學은 (일본에서) 가장 숭상 받는 바로서 천왕으로부터 관백 이하 각 주의 태수가 모두 醫官을 몇 사람씩을 두며 봉급도 매우 후하게 주었다. 그래서 의관은 모두 부자가 된다. 그 풍속이 글을 배운 자는 태반이 醫員이 되는데 그 복색은 중으로 더불어 대략 같으며, 다만 칼 한 자루를 차고 머리를 다 깎았다. 내가 筑前州에서는 小野玄林[26]을 보았고, 강호에 이르러서는 林太醫의 父子[27]와 즐겁게 사귀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문장을 좋아하고 용모가 단정하고 마음이 선량하였다. 기타오 슌포[北尾春圃]는 호를 當壯庵이라 하는데, 저술한 『精氣神論』이 포부가 있는 것 같으므로 내가 서문을 지어 주었다. 製藥法이 精妙하여 首都와 지방의 거리 길가에 金牌가 총총하여 丸·丹·湯)·散 등의 이름을 써 붙였는데, 和中散[28]과 通聖散[29]이 가장 많았다. 그것은 아마 사람들의 성질이 조급하여 기뻐함과 성냄이 편벽되고 또 덥고 따뜻한 지방에 살기 때문에 병이 대부분 痰·火·滯와 같은 鬱症에서 생긴다. 이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약방문이 通和理中하는 和劑에 더욱 치중한 듯하다.[30]

신유한은 良醫나 醫員으로 파견된 인물이 아니었다. 製述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의사의 저술에 서문을 지어줄 정도였다면, 최소한 그가 저술을 읽고서 의학적인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일본의 製藥法이 精妙하다는 평가와 함께 和中散과 通聖散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일본) 사람들의 성질이 조급하여 기뻐함과 성냄이 편벽되고 또 덥고 따뜻한 지방에 살기 때문에 병이 대부분 痰·火·滯와 같은 鬱症에서 생긴다." 는 자신의 의학적 견해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製述官의 의학수준이 상당했으리라 판단된다.

신유한의 기록을 보면 조선과 일본에서 신분적으로 醫官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의사는 봉급도 후하게 받으면서 모두 부자가 되었다는 점과 그들의 복색은 중과 같고 칼 한 자루를 차고 머리를 다 깎았다는 것은 조선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다. 여러 기록에서 儒醫의 모습을 보이는 신유한에게 18세기 초반 유학보다 불교의 색채가 짙었던 일본에서 이 들 의사의 모습이 이채롭게 느껴졌을 것이다.

또한, 『해유록』에는 신유한이 에도를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일본 의사 기타오 슌포[北尾春圃]를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을 보면 기타오 슌포는 조선통신사 일행과 만나게 된 것을 일생일대의 기회로 여겨 1719년 9월 14일에 이 들의 숙소가 있는 佐和城으로 찾아가 필담을 나누었다고 적혀있다. 그 다음 날에도 통신사 일행을 쫓아온 기타오 슌포는 신유한이 오가키[大垣]에 묵을 때 다섯 아들을 데리고 찾아가 詩의 唱和와 筆談을 나눈 사실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今須驛에서 점심을 먹고 2경에 大垣에 당도하니, 등불이 수십 리에 찬란하기가 倭京과 같았고, 인구가 번성하기는 佐和와 같았다. 使館은 花林院이었는데, 내가 거처하는 곳도 또한 통창하였다. 春圃의 아들 春竹, 春倫, 道仙, 春乙, 春達 등 6부자가 함께 와서 시를 지었다. 그들의 집은 大垣에 있는데 모두 글을 읽어 醫術을 업으로 하였다. 또 다른 書生들이 자리에 가득 찼다가 한밤중이 넘어서 헤어졌다.[31]

上記한 使行錄 기록만을 가지고는 일본 의사들과의 필담창화에 참가한 조선측 인원을 알 수 없다. 따라서 良醫와 醫員이 필담 참가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확실해 보이는 것은 良醫와 醫員의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製述官 신유한은 적어도 주도적인 입장에서 일본의 의사들과 자유

---

26) 小野士厚를 말하며 玄林은 그의 호이다.

27)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해행총재』, 1997.
林太醫의 父子로 해석이 되어있지만 林太醫 父子가 맞는 표현이다. 林太醫는 하야시 노부아쓰[林信篤]를 지칭한 것이고, 그의 아들은 하야시 노부미츠[林信充], 하야시 노부토모[林信智]이다. 당시 이들은 하야시 라잔[林羅山], 하야시 슌사이[林春齋] 가문을 잇는 일본 최고의 주자학자이면서 儒醫의 모습을 보여준다.

28) 허준, 『東醫寶鑑』, 남산당, 1983:650.
和中散은 『東醫寶鑑』에 胃를 편안하게 하고 吐하고 설사하는 것을 멎게 하며 煩渴 증상을 없애 주는 처방으로 소개하고 있다.

29) (일본) 사람들의 병이 대부분 痰·火·滯와 같은 鬱症에서 생긴다는 내용으로 보아 여기에서 말한 通聖散은 防風通聖散을 의미하는 것 같다.

30) 신유한, 『해유록』 中 「附聞見雜錄」
"醫學則最爲崇尙 自天皇關白以下各州太守 皆置官數人 給祿料甚厚 故醫官皆富 其俗學文者太半爲醫 其服色 與僧略同 但佩一劍而盡削其髮 余於筑前州 見小野玄林 至江都 與林太醫父子交懽 其人悉喜文辭 貌端而心良 北尾春圃號當壯庵所著精氣神論數卷書似有工程 余爲之序 製藥精妙 京外閭巷道塗之間 金牌如林 書以丸丹湯散諸名 而其曰和中散通聖散者居多 蓋觀其人性燥而偏於喜怒 又居炎燠之地 疾病多生於痰火滯之鬱候 故所用藥方 尤重於通和理中之劑"

31) 상게서
"午飯今須驛 二更抵大垣 燈籠晃朗數十里 如倭京 民戶之盛 如佐和 使館花林院 余所坐亦弘敞 春圃之子春竹春倫道仙春乙春達等六父子 俱來賦詩 其家在大垣 皆讀書業醫 又有他書生滿座 過夜半而罷"

롭게 의학적인 문답을 나눌 정도의 상당한 의학지식을 갖춘 儒醫였다는 사실이다.

Ⅲ. 결 론

본고는 조선통신사의 의학적인 면모를 조명하고자 현재 발굴된 의학문답 기록을 모두 정리해 나가려던 論者의 처음 의도와는 달리 각 기록들이 머금고 있는 의학 문답 기록 외에 당시의 使行錄을 비롯한 여러 기록을 같이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첫째, 18세기에 한일 의학 교류에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은 조선통신사에 良醫와 醫員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에도시대 일본은 쇄국정책으로 고립되었던 까닭에 다른 어떤 의학적인 교류를 펴 나가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조선으로부터 선진 의학지식을 얻기 위한 시도가 조선통신사의 良醫와 醫員의 파견요청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선은 典醫監과 惠民署 등에서 의술이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조선통신사의 良醫와 醫員으로 임명하였던 것이다.

둘째, 良醫와 醫員은 이들이 조선통신사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 의학교류를 수행하며 차지했던 역할이 대단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한국 의학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평가절하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남겨놓은 의서가 전해지지 않았던 점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조선통신사에 참여하였던 다른 직분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良醫와 醫員은 일본 사람들에게 대단한 예우를 받았지만, 정작 조선에서는 조선통신사에서의 이 들의 위치는 중간 정도의 서열이었다. 때문에 엄격한 신분주의 사회였던 조선에서 이 들이 수행한 역할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고, 그 들의 업적이 빛을 보지 못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셋째, 18세기에 한일 의학 교류에는 良醫와 醫員 외에 三使나 製述官, 書記로 파견된 儒醫들의 역할도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의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 筆談唱和에 良醫와 醫員이 참여했던 것처럼, 18세기에 한일 의학 교류의 근간을 이루는 의학문답에 三使와 製述官, 書記가 儒醫의 면모를 보이며 참여하였다. 특히, 1719년 己亥사행 때의 製述官 신유한의 경우를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는 의학문답에 주도적으로 참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의사의 저술에 서문을 지어줄 정도로 의학적인 지식이 풍부한 儒醫출신 이었다. 전문적인 醫學者로 파견된 것은 아니었지만 三使와 그들의 書記 역시도 조선통신사의 의학 문답에서 儒醫의 면모를 보여 주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으로 조선통신사의 의학사적인 연구를 할 경우에는 良醫와 醫員뿐만이 아닌 이들의 활동까지 醫學史 연구의 범위로 잡아야 할 이유를 보여주는 이유가 된다.

넷째, 18세기에 조선통신사 의학문답 기록은 당시의 조선과 일본의 의학 사상을 파악하는 완벽한 사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학문답 기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醫書 연구가 가진 한계를 보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18세기 질병이 유행하는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면서 질병의 상태나 이전까지 받아왔던 치료내용 등을 환자로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조선과 일본 의사들의 경험을 알게 해 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른 한편으로 의학문답 기록을 살펴볼 때에는 사료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발굴된 의학문답 기록을 적혀 있는 그대로 의미를 파악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보다 일본 의사들에 의해 자기 본의대로 쓰여 졌을 가능성이 있는 일본 기록이라는 점과 그 기록마저도 중요한 부분이 누락됨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의학문답에 보이는 의학의 모습이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될 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므로 의학문답 기록이 작성된 각 시기마다의 使行錄이나 관련기록을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이에 대한 보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1. 소강절, 『皇極經世書』; 臺北:中華書局, 1982.
2. 양예수, 『醫林撮要』, 흑조사, 1968.
3. 이 천, 『醫學入門』, 고려의학, 1998.
4. 허 임, 『鍼灸經驗方』, 일중사, 1992.
5. 허 준, 『東醫寶鑑』, 남산당, 1983.
6. 김남일, 「中國醫學史 속에 보이는 醫學論」, 『대한의사학회지』, 2004;13(1).
7. 김남일, 「韓國 醫家의 정체성에 대하여」, 『제7회 한국의사학 학술대회 자료집』, 2006.
8. 김홍균, 「조선중기 의학의 계통에 관한 연구」, 『한국의사학 논문집』, 1995.
9. 김홍균, 「『醫林撮要』의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00.

10. 서근우, 「조선 통신사 의학 문답 기록에 나타난 醫案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7.
11. 성호준, 「『논어』와 儒醫 의학의 상관성」, 『동양철학 연구』, 동양철학연구회, 2003;34.
12. 안상우, 「『醫林撮要』의 板本과 최근 연구 성과」, Digital 醫林撮要 해설, 한국한의학연구원, 2004.
13. 오준호, 「조선통신사 의학문답 속에 나타난 침구 사료」, 『제7회 한국한의학 학술대회 자료집』, 2006.
14. 차웅석, 「『桑韓醫談』과 韓日醫學文化交流」, 『한국의사학회지』, 2004;17(2).
15. 차웅석, 「18세기 조선통신사와 인삼」, 『제7회 한국한의학 학술대회 자료집』, 2006.
16. 강재언,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한길사. 2005.
17. 김기욱 김남일 外, 『한의학통사』, 대성의학사, 2006.
18. 김남일 外, 『각가학설』, 대성의학사, 2001.
19. 김두종, 『한국의학사』, 탐구당, 1981.
20. 미끼 사까에(三木榮), 『朝鮮醫書志』, 학술도서간행회, 1973.
21. 신동원, 『조선 사람의 생로병사』, 한겨레신문사, 1999.
22. 이원식, 『조선통신사』, 민음사, 1991.
23. 임 은, 『한의학과 유교문화의 만남』, 예문서원, 1992.
24. 기타오 슌포(北尾春圃), 『桑韓醫談』.
25. 소야사후(小野士厚), 『藍島鼓吹』.
26. 송본흥장(松本興長), 『兩東鬪語』 坤卷.
27. 촌상계남(村上溪南), 『兩東唱和後錄』.
28. 하촌춘항(河村春恒), 『桑韓醫問答』.
29. 『국역해행총재』, 민족문화추진회, 1997.
30.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 위원회 웹 서비스, (http://sillok.history.go.kr/)
31. 안상우, 고의서산책 中 「兩東唱和後錄」, 민족의학신문, 2005년 08월 12일 제524호.
32.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 서비스, (http://jisik.kiom.re.kr/)